

이산, 세계시민, 신자유주의 - 이사벨 아옌데의 3부작을 중심으로*

우석균(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 I. 들어가면서
- II. 국민에서 세계시민으로
- III. 세계체제에 대한 인식과 국민 개념의 확장
- IV. 이산의 글쓰기와 연대
- V. 신자유주의 담론과 기업가형 인간 싸울리나
- VI. 결론

I. 들어가면서

1973년의 칠레 군부 쿠데타는 대규모 망명을 초래했다. 칠레 인구는 당시 650만에 불과했지만 쿠데타 직후 망명을 떠나거나 외국 체류 중에 귀국을 포기한 사람들은 5만 명을 훨씬 웃돌았다. 망명자들은 스페인, 멕시코, 베네수엘라, 미국, 프랑스, 스웨덴, 구 동독 등 여러 국가에 정착했다. 수많은 국민이 일시에 세계 각지로 흩어지는 칠레 역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난 것이다. 망명 초기 칠레인들의 해외 공동체는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결속력이 강했다. 대다수 망명자가 쿠데타의 참상을 잊지 못하고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2-BM2085).

** Suk-Kyun Woo(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wooskk@hanmail.net), "Diáspora, ciudadano universal y neoliberalismo -la trilogía de Isabel Allende".

있었고, 민주화가 되어 귀국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막상 1990년 민선정부가 들어선 이후 상당수는 귀국하지 않았다. 애일윈(Patricio Aylwin) 정부는 1991년 망명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귀국을 돕기 위해 국민귀환사무소를 설치했지만, 프레이(Eduardo Frei) 정부 때인 1994년 이 사무소는 망명자들과 그들의 가족 중 4만 5천만이 귀국했을 뿐 여전히 7만에 달하는 칠레인들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군부독재가 장기화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17년의 간극을 넘어 고국에서 새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일이었던 것이다.

본고에서 다룰 이사벨 아옌데도 망명으로 해외생활을 시작한 뒤 귀국을 포기한 경우이다. 그녀 역시 처음에는 대다수 칠레 망명자들처럼 곧 국내 사정이 호전되어 귀국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초기에는 고국과의 끈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담긴 작품들을 썼다. 그러나 망명 생활이 길어지면서 점차 해외생활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거나 수용하려는 태도 변화가 엿보인다. 그와 함께 작품 세계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망명의 글쓰기에서 탈피해 이산의 글쓰기의 지평을 열었다는 점이 아무래도 가장 큰 변화일 것이다. 새로운 글쓰기를 시도하면서도 여성 문제는 여전히 그녀의 최대 관심사였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리 국민국가의 테두리를 넘어선 여성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눈에 뜨인다. 또한 여성 문제뿐만 아니라 인종이나 계층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마치 젠더, 인종, 계층을 초월하는 세계시민의 상을 정립하려는 것이 이사벨 아옌데의 목표처럼 보인다. 이사벨 아옌데의 의도는 어쩌면 세계화 시대 세계시민으로서의 덕목을 제시하려는 소박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고는 이사벨 아옌데의 ‘선량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작품이 신자유주의적 가치의 확산과 옹호에 복무하고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자 한다. 이사벨 아옌데가 찬양하는 덕목이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모범국민 칠레 사회에서 1990년대에 형성된 신자유주의 옹호 담론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를 위해 이사벨 아옌데의 3부작 소설 『영혼의 집』(*La casa de los espíritus*, 1982), 『운명의 딸』(*Hija de la fortuna*, 1999), 『세피아 빛 초상』(*Retrato en sepia*, 2000)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세 작품이 3부작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으면서도, 『영혼의 집』과 후속 작품들 사이의 17년의 간극 때문에 이사벨 아옌데의 변화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의 II장에서는 이사벨 아옌데의 전기를 중심으로 그녀가 국민에서 세계시민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추적하고 또한 이 변화가 칠레 문학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영혼의 집』과 후속 작품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국민의 관점에서의 창작과 세계시민의 관점에서의 창작이 실제로 작품세계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살필 것이다. IV장에서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이사벨 아옌데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작품 분석을 통해 부각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1990년대 칠레의 신자유주의 옹호 담론과 이사벨 아옌데의 최근 작품들이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II. 국민에서 세계시민으로

『영혼의 집』을 쓸 당시 이사벨 아옌데는 조국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작품 자체도 피노체트 쿠데타가 일어나게 된 역사적, 사회적 원인을 천착하고 있지만 한 번도 소설을 써보지 않은 그녀가 이 작품을 쓰게 된 원인도 쿠데타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창작을 통해 달래보기 위해서였다. 망명이 얼마나 커다란 충격을 주었는지는 그동안 수많은 대담을 통해 이사벨 아옌데 자신이 누누이 밝힌 바 있다. 1975년 베네수엘라로 망명을 떠날 때 이사벨 아옌데는 집 정원의 흙을 한 줌 가지고 갔다(Allende 2003, 187). 고국과 대지(흙)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었음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이사벨 아옌데는 자신의 처지를 말라죽을 운명에 처한 뿌리 뽑힌 나무로 비유했다(Coddou 1986, 18). 쿠데타 이후 국외로 망명을 시도하

는 사람들을 돕다 신변에 위협을 느껴 떠나온 망명임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떠난 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기까지 했다(Allende 2003, 187). 고국을 잃었다는 그 상실감 때문에 카라카스에 망명한 칠레인들과 긴밀한 연대감을 느끼고, 국경일마다 열리는 조출한 행사에 참여하고, 칠레 식 엠빠나다를 다시는 입에 대지 않을 만큼 물리도록 먹었다. 또한 다른 칠레인들과 살바도르 아옌데의 포스터를 교환하고 민중가수 비올레타 빠라(Violeta Parra)와 빅토르 하라(Víctor Jara)의 노래를 함께 들으며(Allende 2003, 197-8) 죄의식을 덜기 위한 몸부림을 쳤다. 국민은 국가에 귀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이나 국민은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사명감 등의 근대 특유의 국민국가 이데올로기에 충실했던 것이 이사벨 아옌데의 카라카스 망명 시절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이사벨 아옌데의 모습은 안토니오 스킨메타(Antonio Skármeta)의 중편 소설 『나 반칙 안했어』(*No pasó nada*, 1980)에 등장하는 서베를린의 망명 칠레인들의 모습 바로 그것이다. 이 작품 속 칠레인들은 쿠데타가 일어났던 날인 9월 11일 기해 규탄 행사를 준비하고, 독일인들에게 동참과 지지를 호소하고, 살바도르 아옌데를 기리고, 거리를 행진하며 민중연합 시절의 민중가요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고 눈물을 흘린다(Skármeta 1985, 47-51). 사실 당시 칠레인들의 의식구조로는 국가와 국민이 격리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국가와 국민을 동일시하는 의식구조가 뿌리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의식구조는 20세기 들어 중, 하층의 도전으로 과두지배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형성되었다. 그 어느 정파이든지 다수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국가체제를 확립해야만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1938년의 민중전선(Frente Popular) 정부는 민중주의적 국민국가(estado nacional popular)를 지향했고, 우파나 기독교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1950-1970년 사이에도 개입주의적, 보호주의적 국가(estado intervencionista y proteccionista)의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Larraín 2001, 103-110). 살바도르 아옌데의 민중연합 역시 이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은 물론이다.

조부와 주고받던 편지는 이사벨 아옌데에게 있어서는 조국과의 중요한 연결고리였다. 그러나 1981년 조부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칠레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 연결고리를 유지하기 위한 무엇인가를 할 필요를 느꼈고, 그녀가 선택한 것은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소설을 쓰는 것이었다(Allende 2003, 198-9). 자신의 가족사와 칠레 역사를 되돌아본 『영혼의 집』은 이렇듯 칠레 국민에서 배제될지도 모른다는 정신적 위기 속에서 쓴 작품이었던 것이다.

반면 『운명의 딸』과 『세피아 빛 초상』은 국민으로서의 강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작품들이다. 사실 칠레 해외문학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미 변화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 망명이 장기화되면서 이미 이주가 야기한 제 문제에 대해 성찰하기 시작했다. 스카르메따의 『나 반칙 안 했어』는 이주 문제를 다룬 최초의 작품으로 거주국 생활에 대한 부모 세대와 이민 1.5세대의 시각차를 부각시키고 있다. 부모 세대는 망명 생활을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여 고국의 군부독재를 규탄하는 데 열중하고 있는 반면, 14세 소년 루초는 독일인 또래 집단에 편입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우석균 2004, 140-41). 국민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감에서 벗어난 인물이 칠레 망명문학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다. 호세 도노소의 『옆집 정원』(*El jardín de al lado*, 1981) 역시 망명이 야기한 새로운 고민을 표출했다. 주인공 멘데스는 쿠데타 이후 6일간 감금된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그 경험에 기초해 불후의 정치 소설을 쓰고자 하는 망명 작가이다. 그러나 도노소는 반독재 투사를 자처하는 멘데스가 사실은 얼마나 공허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멘데스가 불후의 정치 소설을 쓰려는 진정한 이유는 국내에 머문 자들의 시선 때문이다. 번듯한 직업이나 특기할 만한 성공 없이 귀국할 수는 없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멘데스의 강박관념은 쿠데타 이후 칠레 현실의 일부이기도 하다. 망명자들이 독재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또 칠레보다 경제적 성공이 용이한 곳에서 안락하게 살고 있다는 머문 자들의 비난이나 질시의 눈초리가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다

(Kaminsky 1999, 18). 도노소는 쿠데타 이후 망명자와 머문 자들 사이의 위화감을 부각시킴으로써 ‘동질적인 국민’이라는 근대국가의 환상을 여지없이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도노소는 『절망』(*La desesperanza*, 1986)에서는 “나는-망명을-가-있었고-그래서-당신들보다-우월하다”(yo-estuve-exiliado-y-por-lo-tanto-soy-mejor-que-ustedes) 라는 이름의 족속의 존재를 언급한다(Donosó 1986, 28). 이번에는 망명자들이 남은 자들에 대해 느끼는 우월감을 언급함으로써 또다시 ‘동질적인 국민’에 대한 환상을 해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카르메따나 도노소는 국민국가에 대한 환상을 완전히 저버리지는 못했다. 스카르메따의 『봉기』(*La insurrección*, 1982)나 『네루다의 우편배달부』(*El cartero de Neruda*, 1985)는 여전히 민중의 힘에 신뢰를 보내고, 엘리트와 일반국민의 진정한 연대를 통해 국가를 변혁시키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Piña 1991, 179-180). 도노소의 『절망』에서는 칠레로 귀환한 민중가수 마냥고 베라가 산티아고에서 스무 시간을 보내면서 절망적인 현실을 접하지만, 그러면서도 맹목적인 귀속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정착을 결심한다(Donosó 1986, 323).

스카르메따나 도노소에 비해 이사벨 아옌데는 훨씬 적극적으로 국민국가의 구속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에바 루나』(*Eva Luna*, 1987)에서는 망명지인 베네수엘라에서의 적응 문제를 다루고, 미국인과의 재혼 후 캘리포니아에 정착하면서는 미국 사회를 소재로 한 『영원한 계획』(*El plan infinito*, 1991)을 쓰기도 했다.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비록 캘리포니아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완전히 동화되지도 못하리라고 처음부터 선을 긋고는 있지만(Allende 2003, 210-11), 망명 시절과는 달리 해외생활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발견하고 있다. 가령, 칠레에 있을 때처럼 전통과 가족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자유로운 생활을 가능하게 했다고 토로한다(Allende 2003, 214). 그녀가 내린 결론은 “현재 캘리포니아가 나의 집이며 칠레는 향수의 땅이다. 내 가슴은 둘로 나뉜 것이 아니라 커졌다. 어느 곳에서든지 살아갈 수 있고 또 작품도 쓸 수 있다”(Allende 2003, 220) 라는 것이었다. 미국이나 칠레 그 어느 곳에

도 속하지 않는 자유로움을 천명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의 국민으로서가 아니라 세계시민으로서 살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III. 세계체제에 대한 인식과 국민 개념의 확장

『운명의 딸』과 『세피아 빛 초상』에서 국민에서 세계시민으로의 이사벨 아옌데의 변화가 확연히 드러나는 점은 『영혼의 집』과는 달리 세계체제에 대한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영혼의 집』은 뜨루에바로 상징되는 가부장적 질서가 쿠데타의 원인이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런데 뜨루에바만큼 칠레가 근대 국가로 변모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오류를 압축하고 있는 인물도 없다. 즉, 칠레가 일국가 단위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인물인 것이다. 다음은 리마 부왕의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정작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류층에서 탈락한 뜨루에바가 부의 축적에 나서는 대목이다.

어렸을 때부터 배운 정직함을 저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성공하려면 후견인이나 전문적인 공부 혹은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좋은 가문 태생이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중략)... 금광과 은광은 모든 모험가의 꿈이었다...(중략)... 외가의 명성 덕분에 나는 북부 광산의 채굴권을 따낼 수 있었고, 덕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Casa, 52-3)¹⁾

뜨루에바가 가문보다 돈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이 구절은 칠레에 자본주의의 맹아가 싹트면서 가문의 명예보다 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명문가인 외가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기는 했지만 뜨루에바는 광산에서 직접 노동을 해야 했다. 더구나 노동을 통한 잉여가치 창출이 자본(금융 자본)의 도움 없

1) 작품 인용은 『영혼의 집』은 Casa, 『운명의 딸』은 Hija, 『세피아 빛 초상』은 Retrato로 표기하고 해당 페이지를 적겠다.

이는 부의 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였다. 아무튼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는 데 성공한 프루에바는 이미 폐허가 되다시피 한 농장 프레스 마리아스로 돌아간다. 가문대대로 내려오는 농장이었다. 그런 결정을 갑작스럽게 내리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결혼을 약속했던 미녀 로사가 죽었기 때문이다. 그녀와의 결혼을 꿈꾸며 힘든 광산 일을 참아왔는데 그녀가 죽게 되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농장행을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 “땅은 절대로 팔면 안 돼. 모든 것이 없어져도 땅만은 남으니까”(Casa, 46) 라는 신념이 있었던 것이다. 프루에바는 농장을 옥토로 바꾸어 상당한 부를 축적한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죽어 가면서 아들이 결혼해서 대를 잇기를 바라자 로사의 동생 끌라라를 아내로 맞이하고 산티아고에도 대저택을 짓는다. 상류층 가문의 딸과 결혼을 하고 대저택을 지음으로써 프루에바는 명실 공히 상류층으로 재진입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후 프루에바는 주식에도 투자하고 무역에도 손을 대면서 손꼽는 부호가 되고, 상원의원으로 변신하면서 상류층을 주도하기까지 한다.

광업, 금융, 토지, 무역의 결합과 이에 따른 정치권력의 획득은 바로 칠레 과두계층이 밟아온 길이다. 칠레가 세계경제체제에 편입된 19세기 하반기에 해외무역이나 광업 혹은 금융업으로 부를 축적한 신흥부호들이 생겨났다. 이들이 바로 칠레의 초기 부르주아지였다. 이들은 상류층에 확고히 편입되기 위해 토지귀족과의 결혼을 추진한다. 토지귀족은 그들 나름대로 다른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부르주아지와 결혼을 통해 부의 축적을 시도하였다. 칠레의 역사학자 비야로보스에 따르면 토지귀족과 신흥부호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 바로 과두지배층이었다(Villalobos 1987, 105-110).

프루에바는 프레스 마리아스의 농민들을 자신의 소유물쯤으로 여겨 무지막지하게 부려먹고 처녀들을 거리낌 없이 겁탈하면서도 농민들을 위해 많은 배려를 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인다. 프레스 마리아스 안에 학교를 짓고, 잡화점을 만들고, 화폐처럼 통용되는 딱지를 발행하고, 매일 빼은들에게 빵과 우유를 배급하고, 크리스마스 와 국

경일에는 돈을 나누어주고, 비타민의 효용을 역설하고, 외국방송까지 들을 수 있는 라디오를 설치한다(*Casa*, 58-9). 이런 모순된 태도는 프레스 마리아스가 국가의 축소관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교육과 보건과 사회복지(빈민구호)에 신경 쓰고, 화폐를 유통시키고 방송국을 만드는 공간으로서의 프레스 마리아스는 사실상 일국가처럼 작동하고 있고, 과두계층의 대표적 인물이 국가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암시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인 것이다. 일국가 단위의 칠레를 설명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프레스 마리아스가 설정된 상황에서 트루에바의 독백은 의미심장하다.

여기서[프레스 마리아스] 일할 줄 아는 사람은 나뿐이야. 어디 그렇지 않다고 입증해보라지. 이 빌어먹을 땅에서 내가 제일 빨리 일어나고 제일 늦게 잠자리에 든다고. 내 생각만 한다면 다 때려치우고 수도로 가서 제왕처럼 살 수도 있었어. 하지만 나는 여기에 있어야만 해. 일주일만 자리를 비워도 농장이 망하고 이 가련한 놈들이 굶주리기 시작할 테니까.(*Casa*, 62)

트루에바가 농장의 번영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것은 결국 과두계층이 칠레의 발전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트루에바는 자식들과 손녀를 영국인 학교에 보내고 해외무역에 손을 대고 국제경제 동향에도 관심을 기울이지만 세계체제의 작동원리까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즉 자신이 광산과 농장에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신식민주의적 질서에 칠레가 ‘순조롭게’ 편입되면서 1차 상품의 공급지 역할을 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결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운명의 딸』은 이와는 달리 작품 서두에서부터 세계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칠레를 묘사하고, 또 실질적으로 칠레의 번영을 주도한 이들은 영국인이었음을 암시한다.

칠레는 1810년 독립할 때부터 이민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영국인들은 [발빠라이소에서] 상인과 해운업자로 재빨리 부를 축적했다. 그리고 많은 이가 가족을 데리고 와서 정착했다. 그들은 칠레 안에 작은

국가를 건설하여 풍습과 종교를 지켰고, 독자적인 신문사, 클럽, 학교, 병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너무도 훌륭하게 이를 수행해서 칠레인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는커녕 문명의 모범으로 인식되었다... 발 빠라이소는 20년이 채 못 되어 중요한 항구가 되어 케이프 혼을 통해 대서양에서 온 배들이 정박했고, 나중에는 마젤란 해협을 지나는 증기선들도 정박했다(Hija, 23).

『운명의 딸』과 『세피아 빛 초상』은 나아가 세계체제가 칠레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했음을 시사한다. 이 점은 빠울리나 텔 바예를 통해 잘 드러난다. 『운명의 집』에서 텔 바예 가문은 대대로 칠레에서 손꼽는 토지귀족이다. 빠울리나는 신흥부호 펠리시아노와 사랑에 빠지지만 그녀의 아버지 아구스틴 텔 바예는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다. 아직 토지귀족과 신흥부호가 과두계층으로 결합되기 이전에 신흥부호에 대한 토지귀족의 경멸이 표출된 사건이다. 그러나 빠울리나는 기어코 펠리시아노와 결혼한다. 그리고 해운업에 뛰어들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다.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때 그곳으로 각종 물자를 운송하여 얻은 부이다. 반면 아구스틴은 전통적인 농업을 고수했으나, 골드러시로 미국 서부가 개발되면서 역으로 칠레에 대규모 밀을 수출하자 차츰 경제적 권력을 잃어간다. 칠레와 캘리포니아가 세계체제 속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세계체제에 대해 성찰하기 시작하면서 이사벨 아옌데는 사회적, 경제적 억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인식을 달리한다. 『영혼의 집』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이 뜨루에바로 대표되는 과두계층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반면, 『운명의 딸』과 『세피아 빛 초상』은 더 폭넓은 억압체제의 존재를 언급한다. 가령, 호아킨 안디에따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다. 『운명의 딸』의 주인공 엘리사 소머스의 첫사랑인 그는 캘리포니아로 가기로 결심을 한다. 부자가 되어 신분상승의 꿈과 엘리사와의 결혼을 모두 이루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칠레에 남아 있어봤자 “고작 영국수출입회사 책상을 통과하는 물건이나 세면서 늙어갈 것”(Hija, 138)이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비록 칠레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국이

주도하는 세계체제의 하위단위에 임노동자로 편입되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그 체제 하에서 신분상승의 기회를 얻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세계체제로 관심을 돌리면서 이사벨 아옌데는 국민의 정의마저 확대한다. 주지하다시피 『영혼의 집』에서는 끌라라-블랑까-알바로 이어지는 모계 혈통이 사실상 가문의 대를 이어간다. 그런데 이 가문은 칠레 현대사의 주요 인물들과 교류를 나누고 있다. 비록 직접적으로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지만, 쿠데타 직후 사망한 좌파의 상징적인 인물인 살바도르 아옌데, 네루다, 빅토르 하라가 그들이다. 작품 속에서 시인으로 호칭되는 인물은 곤궁한 시절 끌라라의 후원을 받고, 성공한 뒤에는 평생 교분을 나누는 사이가 된다. 그리고 쿠데타 직후 시인의 장례식에는 프루에바와 알바로 참석한다. 사회주의자 후보로 호칭되는 인물은 끌라라의 또 다른 쌍둥이 아들 하이메와 교분을 나눈다. 하이메는 훗날 대통령이 된 그의 주치의가 되었다가 쿠데타가 일어난 날 대통령 궁에서 체포되어 고문 끝에 최후를 맞이한다. 블랑까의 연인인 민중가수 베드로 페르세로는 빅토르 하라를 연상시킨다. 『영혼의 집』은 이들과의 관계를 부각시킴으로써 끌라라 가문의 구성원을 국민으로 독해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가문의 구성원이 모두 다 국가와 운명을 같이하는 것은 아니다. 프루에바의 아버지나 블랑까의 첫 남편 같은 외국인들은 가문의 역사에서 망각되거나 타락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끌라라의 쌍둥이 아들 중 하나인 니콜라스처럼 외국문물에 관심이 많은 인물들 역시 가문의 역사에서 일탈적인 경우로 간주된다. 칠레 현대사의 중심에서 있는 가문에서 가족사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은 이들이 국민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즉, 『영혼의 집』에서는 대문자로 된 역사를 투철하게 살아간 인물만이 국민의 범주에 포함되고, 또한 국민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혈통에 따른 검열기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운명의 딸』과 『세피아 빛 초상』에서도 역시 가족사와 근대사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지만 『영혼의 집』보다는 훨씬 유연한 국민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운명의 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캘리포니아를 무대로 한 소설이기 때문에 칠레 역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러나 엘리사 소머스라는 여주인공이 외국 땅에서 겪는 애환을 그린 이 작품은 대문자로 된 역사가 아니라 소문자로 된 역사를 살아간 인물 역시 국민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국민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혈통에 따른 검열기제는 제거된다. 외국인의 존재는 『영혼의 집』에서처럼 망각되거나 타락 혹은 일탈로 규정되지 않는다. 심지어 때로는 그들의 덕목이 칠레인들의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칠레인의 엄격함과 제도적 굳건함은 이웃 국가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칠레의 교육기관들은 외국인 교수와 학생들을 끌어들였다. 영국인, 독일인, 스페인인 이민자들의 영향이 격정적인 프리오요 기질을 어느 정도 절제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Retrato, 120-21).

특히 엘리사의 경우 영국인과 칠레인의 혼혈이지만 폐쇄적인 영국인 공동체 안에서 영국인 고모에 의해 완전히 유럽식으로 교육을 받기까지 한다. 또한 첫사랑 호아킨을 쫓아 미국으로 간 후에는 중국인 타오 치엔과 결혼하고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30년을 거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피아 빛 초상』은 그녀의 외손녀인 아우로라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으며, 칠레 현대사의 또 다른 비극인 이끼계 학살의 현장을 사진으로 담아 역사에 보존하는 역할을 부여한다. 『영혼의 집』에서처럼 외국인의 피를 받았다는 사실이 그저 망각되는 것이 아니라, 내국인/외국인의 경계 자체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IV. 이산의 글쓰기와 연대

이사벨 아옌데가 일국가보다 세계체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굳이 국민의 개념을 확장시키기까지 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무엇보다도

작가 자신이 이주자의 위치에 대한 성찰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으리라. 크게 보면 『운명의 딸』은 엘리사가 이주국에서 이주자의 위치를 모색하는 이야기이고 『세피아 빛 초상』은 엘리사의 외손녀 아우로라가 칠레로 귀환해 자신의 위치를 모색하는 이야기이다. 이사벨 아엔데의 이중적 정체성이 각각 엘리사와 아우로라라는 인물을 통해 투영된 것이다. 그렇지만 두 주인공은 또한 동일한 인물이기도 하다. 두 인물 모두 이사벨 아엔데처럼 어느 곳에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엘리사가 미국으로 가게 된 것은 첫사랑 호아킨 안디에따가 떠난 후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엘리사는 몇 년간 남장을 하고 서부를 돌아다니면서 호아킨에 대해 수소문한다. 그러던 중 호아킨 무리에따라는 전설적인 도둑이 자신의 애인 호아킨 안디에따와 동일 인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니게 된다. 이때는 이미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고, 처음 캘리포니아로 밀항 중 유산으로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 그녀를 살려준 타오 치엔과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을 무렵이다. 『운명의 딸』은 호아킨 무리에따가 잡혀서 효수되고, 엘리사가 그 인물이 자신의 첫사랑과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하러 가는 장면으로 끝난다. 하지만 효수된 머리만을 보고는 그 인물이 자신의 첫사랑인지 아닌지 식별하기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녀와 동행한 타오 치엔에게 “이제 나는 자유로워요”(Hija, 429) 라고 말한다. 자신의 첫사랑이 죽었다고 간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엘리사가 말하는 자유는 이사벨 아엔데가 미국에서 느낀 것과 마찬가지로 전통이나 가문에 얽매이지 않을 자유이고 여성에게 강요되는 삶을 살지 않을 자유이다. 그리고 또한 아우로라가 추구하는 자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우로라는 엘리사의 삶을 예찬한다.

엘리사 할머니는 아직 어렸을 때 가정의 보호를 박차고 무정한 연인의 흔적을 쫓았다. 어느 배에 밀항자로 몸을 실었고, 유산을 했으며, 거의 목숨까지 잃을 뻔했다. 캘리포니아에 도착해서는 순전히 절망적인 사랑의 충동으로 남장을 하고 그 땅을 끝에서 끝까지 살살이 훑고 다

났다. 할머니는 탐욕과 폭력이 난무하는 마초들의 땅에서 능히 홀로 생존할 만한 분이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용기를 습득하고 독립적인 삶을 사랑하게 되었다.(Retrato, 321)

이런 엘리사의 모습에서 유목적 주체의 특징을 발견하는 것도(Feal and Miller 2002, 76-7) 무리는 아니다. 한 곳에 얽매이지 않을 자유, 어느 곳에도 뿌리내릴 수 있는 자유를 주장한 엘리사는 분명 망명자와는 다른 주체의 특징을 보여준다. 기원(조국)에 대한 절절한 상실감이나 기원으로 회귀하겠다는 의식은 그녀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이사벨 아옌테가 시도하고 있는 것은 망명의 글쓰기가 아니라 이산의 글쓰기이다. 망명의 글쓰기와 이산의 글쓰기의 차이에 대한 니코 이스라엘의 비유는 이사벨 아옌테의 3부작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는 망명을 모더니즘에 비유하고 이산을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탈식민주의에 비유했다(Israel 2000, 3). 망명이 상실감과 회귀의식에 사로잡힌 주체를 생산하기에 모더니즘의 종교적 열정에 비유한 것이고, 이산은 망명과는 달리 중심이 부재하는 포스트모던적 주체를 야기한다는 의미에서이다. 이산의 글쓰기에서 탈식민주의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그의 주장은 이사벨 아옌테의 경우 확연히 드러난다. 그녀가 자신의 분신으로 굳이 엘리사와 아우로라 두 인물을 설정한 이유가 바로 제1세계에 거주하게 된 제3세계인의 위치(location)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엘리사와 아우로라는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이주민과 역 이주민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이사벨 아옌테는 이주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칠레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혼종적 정체성을 각각 이주민 엘리사와 역 이주민 아우로라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주민 엘리사를 통해서만 거주국인 미국과의 교섭(negotiation)을 시도하고 역 이주민 아우로라를 통해서만 조국 칠레와 교섭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자유로움’을 ‘그 어느 곳에도 자신의 위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인식하는 이런 태도는 호미 K. 바바가 말하는 “사이에 낀”(in-between)(바바 2002, 28) 공간에 자신의 주체를 위치시

키기의 전형적인 예이다.

국민국가의 테두리에 갇혀 있던 『영혼의 집』에서보다 사이에 낀 위치에서 세계를 재단하게 되면서 이사벨 아옌데는 비판적 인식의 폭을 넓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가령 마리아 끌라우디아 안드레는 『운명의 딸』과 『세피아 빛 초상』에는 하위주체의 시각이 담겨 있다고 지적한다(Feal and Miller 2002, 76). 가브리엘라 모라를 필두로 『영혼의 집』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비평가들이 거론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작품에 등장하는 하위주체의 수동성인 것을 감안하면(Feal and Miller 2002, 134) 안드레의 긍정적인 평가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폭력적인 국가를 고발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여성성을 강조한 『영혼의 집』과는 달리 『운명의 딸』이나 『세피아 빛 초상』은 확실히 여성 문제를 넘어 인종과 계층 문제에 대해서도 성찰하고 있다. 이 두 작품에는 사실 젠더, 인종, 계층을 넘어선 연대를 강조하는 대목이 너무도 많이 등장한다. 가령 엘리사는 미국에서 글을 못 읽는 하층민 사람들을 위해 편지를 읽거나 써주고, 매춘부들을 위해 피아노를 치고, 기동서방 구실을 하던 흑인과의 인간적인 교우를 나누고 중국에는 중국인 타오 치엔과 결혼한다. 또한 백인들에게 억압당하는 멕시코인들에 대한 관심도 각별하다. 타오 치엔 역시 차이나타운에서 의술을 펴며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마피아에 의해 노예처럼 팔려온 중국인 매춘부들을 돕다가 피살당한다. 아우로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아우로라는 이끼끼 학살의 증인이 되지만 그녀가 대문자로 된 이 역사적 사건과 조우할 수 있었던 것은 『영혼의 집』에서처럼 국가와 동일시되는 가문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즉, 국가와 운명을 같이 하는 국민이기 때문이 아니다. 이는 당대의 거부였던 빠울리나가 죽고 나서 유산 상속을 포기하고 사진작가로서 독립적인 삶을 살기를 선택한 덕분이고, 열악한 작업환경과 삶에 찌든 초석 광산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의 결과였다. 그녀는 사진을 배울 때부터 풍경보다는 인간에 대해 관심을 지녔고,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광산, 파업, 병원, 빈민가, 보잘 것 없는 학교, 4빠소짜리 하꼬방, 할일 없는 퇴직자들이 있는 먼지로

뒤덮인 공원, 농촌, 어촌”(Retrato, 223) 등을 사진 소재로 삼다가 이 끼계 학살과 조우한 것이다. 즉,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감이 아닌 인간에 대한 연대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이런 측면 때문에 이사벨 아옌데의 귀환의 이야기는 여타 칠레 작가들의 귀환의 이야기와는 다르다. 가령, 도노소의 『절망』처럼 절망적인 현실에도 불구하고 조국이라는 이유로 귀환을 결정하는 주인공과 칠레에 거주하면서도 국가보다는 인간들끼리의 연대에 관심을 보이는 아우로라는 분명 차이가 난다.

결국 이사벨 아옌데의 관심사는 국가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사이에 낀 주체의 위치를 모색하는 존재론적, 인식론적인 차원도 초월하고 있다. 하위주체의 연대가 어떻게 실천 가능한 지를 탐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사벨 아옌데의 글쓰기는 마치 세계시민의 미덕이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듯하다. 그녀의 인식 지평의 확장이 이주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그 이주가 망명이 아닌 이산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이었으며, 이산이 무절제한 자유가 아니라 연대와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은 아마도 엘리사의 밀항 일화를 통해 가장 집약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듯하다. 『운명의 딸』에는 여러 척의 배가 등장하지만 그중 두 척의 배는 작품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데 대단히 의미심장하다. 하나는 타오 치옌이 홍콩을 떠나 칠레로 오는 배이고, 또 하나는 엘리사가 캘리포니아로 가기 위해 탄 배이다. 두 척의 배는 상이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타오 치옌의 배가 근대의 냉혹한 원리가 작동되는 식민체제로 가는 배였다면 엘리사의 배는 거기로부터 탈주하는 배이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타오 치옌은 우여곡절 끝에 중국인 의사 밑에서 착실히 의술을 배우면서 스승의 업을 이을 희망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아편전쟁이 일어나고 굴욕적인 난징 조약이 맺어지는 어수선한 시절이 닥치면서 스승은 삶에 대한 애착을 상실하고 죽는다. 타오 치옌은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영국에 할양된 홍콩으로 간다. 의사가 되어 어느 정도 돈을 모으지만 그는 영어를 배운다. 영어를 잘 해야 출세할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중국과 홍콩에도 세계체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면서 타오 치엔이 세속적 계산에 밝고 합리성을 지닌 근대적 인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근대적 인간으로서의 타오 치엔의 면모는 무엇보다도 전족과 관련된 일화에서 잘 드러난다.

타오 치엔은 가냘프고 발이 아름다운 젊은 여자를 아내로 맞을 꿈을 품고 있었다...[중략]... 그는 농촌 처녀의 발처럼 크고 우락부락하고 차가운 발을 끔찍이 싫어했다. 고향마을에서 발을 동여 맨 여자아이들이 멀리서 본 적이 있었다. 틀림없이 좋은 데로 시집보낼 수 있을 그 여자 아이들은 자기 집의 자랑이었다.(Hija, 187)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전근대적 상징인 전족에 집착하는 타오 치엔의 태도는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불완전한 이행을 시사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는 결혼소개소에서 전족을 지닌 부인을 사는 것으로 자신의 욕구를 ‘근대적’인 방법으로 해소한다. 하지만 홍콩에서 타오 치엔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근대의 속성이 있었다. 그는 요리사를 잃은 존 소머스의 배에 납치된다. 부인이 출산 중에 죽은 뒤 방황하던 터라 뱃사람으로 떠도는 일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지만, 그는 세계체제가 식민 지배자들에 의해 움직이고, 그 체제가 인종차별적이며, 약육강식의 세계라는 것을 뱃속깊이 체험하게 된다.

타오 치엔의 첫 번째 놀라움은 중국이 세계의 절대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다른 문화들이 있었고, 그 문화들이 야만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훨씬 더 강력한 문화였다. 그는 영국인들이 지구의 상당 부분을 거머쥐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다른 양놈들이 떠나면 땅에도 방대한 식민지를 건설해 사대륙 여기저기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 역시 상상도 못했다.(Hija, 212-13)

타오 치엔은 맥주를 마시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는 누런 개는 못 들 어와” 라고 말하면서 그를 쫓아냈다. 그는 곧 아시아 계 다른 뱃사람들과 같이 늙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발견했다. 그곳에서야 그들은 편안히 먹고 마시고 담배를 피울 수 있었다. 타오 치엔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배울 게 많은지 따져보았다. 그리고는 주먹

질과 칼 쓰는 법부터 먼저 배워야겠다고 결심했다.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면 지식은 거의 소용없는 것이었다.(Hija, 213-14)

이처럼 타오 치엔이 타고 온 배는 그와 세계체제의 조우가 식민적 만남(colonial encounter)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다.

2년간의 항해 끝에 타오 치엔은 발빠라이소에 내린다. 그리고 그가 항해 중에 의사로 일한 공을 인정한 존 소머스는 타오 치엔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 준다. 타오 치엔은 발빠라이소에서 캘리포니아로 가는 배를 다시 타기로 결정한다. 그러다가 진주목걸이를 받고 엘리사의 밀항을 돕게 된다. 배 밑바닥 창고에 숨어서 가던 엘리사는 하혈을 하고 실신한다. 타오 치엔이 그녀를 죽게 내버려두고 시신을 몰래 버려 밀항을 도운 사실을 은폐할까도 하는 중에 죽은 부인 린의 영혼이 나타나 도와주라고 부탁한다. 타오 치엔은 자신이 왜 엘리사의 밀항을 도와주었는지 다시 생각해본다.

정말 위험스러운 일이었다. 단지 진주목걸이가 탐나 자신이 그런 경솔한 일을 했을 리는 없었다. 엘리사의 용감한 결정이나 가너린 몸 혹은 린을 떠올리게 만든, 그녀가 내뿜는 열정적인 사랑이 그를 감동시켰던 것이다...(Hija, 224)

타오 치엔과 엘리사의 만남은 이렇듯 처음부터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었다. 타오 치엔은 홍콩에서 배운 서양 의술을 발휘하여 간단한 수술을 하고 동양 의술로 엘리사의 몸을 보한다. 이로써 서구의 지식은 더 이상 식민권력이나 식민지배의 도구가 아니고, 동양의 지식은 서구의 지식과 동등한 반열에 오른다. 타오 치엔은 자신이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그녀를 간호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아수세나라는 여인에게 부탁한다. 아수세나라는 골드러시로 건장한 남자들만 들끓게 된 캘리포니아에서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싶어 여행길에 오른 매춘부이다. 비록 몸을 파는 여자이지만 멀미로 고생하는 사람들이나 팔이 부러진 선원을 돕는 것을 타오 치엔이 눈여겨보았던 것이다. 타오 치엔과 아수세나의 도움으로 엘리사는 마침내 소생

한다. 매춘부의 등장은 계층간 장벽을 초월한 인간들끼리의 연대를 시사한다. 엘리사의 밀항에서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남성과 여성의 성적 차이까지 허물고 있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에 도착하려면 얼마나 남았나요?
-많이요.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이젠 소변을 봐야 해요.
-싫어요. 제발.
엘리사가 거부했다.
-싫다니요? 그렇게 해야 해요!
-당신 앞에서요?
-나는 중이[의사]예요. 나한테 부끄러워하다니요. 이미 당신 몸에서 볼 건 다 보았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행을 견뎌내지 못할 것 같네요. 차라리 죽고 싶어요...
엘리사가 작은 변기 위에 앉으려고 타오 치엔에게 의지하면서 흐느꼈다.(Hija, 227)

이 대목을 그저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일어난 일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는 훗날 두 사람의 사랑이 우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첫사랑의 흔적을 쫓아다니던 엘리사는 종종 타오 치엔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는 어느 날 그 편지들을 보면서 “여자와, 그것도 다른 문화권 여자와의 우정이 가능하리라고는 결코 생각해 보지 않았기에 엘리사를 생각하며 그리워한다는 것이 놀랍게 느껴졌다”(Hija, 341) 라고 생각한다. 그의 생각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완전히 무화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가령, 타오 치엔은 엘리사와의 우정 덕분에 여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한다(Hija, 379). 이는 타오 치엔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성(sexo)의 차이로 인식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과 여성의 성적 차이가 차별을 낳지 않고 이해의 대상이 되었을 때 여성 문제는 젠더의 문제로 화한다.

타오 치엔과 엘리사가 탄 배는 이처럼 인종과 계층과 젠더간의 경계를 초월한 인간형을 낳았다. 계급이나 국가 혹은 이데올로기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던적 주체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인종 문제나 식민지배자/피지배자의 계서

제가 허물어진다는 점에서는 탈식민주의적 주체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배이다. 이사벨 아옌데는 포스트모던적 주체보다는 탈식민주의적 주체의 탄생에 더 관심이 많은 듯하다. 엘리사가 폐쇄적인 영국인 공동체라는 식민자의 위치를 포기했을 때 비로소 억압된 여성의 위치에서 벗어났고, 억압된 여성의 위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오 치옌을 비롯한 타 인종, 타 계층과의 연대를 실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V. 신자유주의 담론과 기업가형 인간 싸울리나

『운명의 딸』과 『세피아 빛 초상』에서 이사벨 아옌데가 추구한 긍정적인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들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1990년대에 칠레 사회에서 힘을 얻은 신자유주의 옹호 담론과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1992년은 칠레 역사상 보기 드문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해였다. 연말에 칠레 언론들은 칠레가 아시아의 네마리 호랑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해에 개발도상국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보다 한 계단 높은 6위에 뽑혔으니 전혀 근거 없는 보도는 아니었다. 대내외 언론들은 칠레의 높은 경제성공률을 신자유주의의 공으로 돌렸다. 이로 인해 칠레가 신자유주의 모범국이라는 인식이 해외에는 물론 칠레인들의 뇌리에도 깊이 각인되었다. 물리앙의 지적처럼 이로써 칠레인들은 1990년대에 접어들어 칠레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는 다른 나라이고, 현대화에 성공한 나라이며, 세계화를 선도하는 나라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Moulian 1997, 97-99).

신자유주의 모범국이라는 인식은 칠레 국민들에게 자부심만 심어준 것이 아니라 칠레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다. 수베르까소는 칠레가 1992년 세비야 엑스포에 빙산 조각을 전시한 사건 이후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진정한 문화적 정체성은 무엇인가?”(Subercaseaux 1993, 13) 라

는 질문이 확산되었다고 주장한다. 남극의 빙산을 가져가 6개월 동안 녹지 않게 전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칠레가 이제 현대화된 국가라는 환상을 심어 주었고, 이에 따라 현대화된 국가가 나아갈 방향이나 현대화된 국가의 국민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정체성 논의의 특징은 전통에 대한 보존의지보다 모더니티 성숙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담론이 우세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라라인은 1990년대 칠레의 사회 담론이 정체성과 모더니티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지 못하고 모더니티에 대한 경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Larrain 2001, 135-37).

라라인도 예를 들고 있듯이 호세 호아킨 브루네르와 끌라우디오 벨리스는 모더니티 성숙의 필요성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브루네르는 교육의 확충, 도시적 생활양식의 정착, 대중문화의 탄생 등으로 칠레에 이미 1950년대부터 서구적 모더니티가 자리를 잡았다고 주장한다(Brunner 1992, 59-62). 또한 라틴아메리카 전체가 식민시대 이래 겪어온 혼종의 경험으로 인해 포스트모더니즘이 도래하기 전부터 이미 이질성(heterogeneidad)이라는 문화적 특징을 지니고 있고, 이는 칠레의 예에서 입증되듯이 세계시장에 대한 개방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Brunner 1995, 40). 적어도 라틴아메리카에서는 포스트모더니티가 모더니티의 연장, 성숙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유동성과 개방성 같은 세계화 시대의 특징을 모더니티의 성숙으로 파악하는 브루네르의 관점에서 볼 때 이질적 문화는 신자유주의 모범국으로서의 칠레를 있게 한 중요한 덕목이다. 벨리스는 라틴아메리카 전체가 아직 성숙된 모더니티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브루네르와 반대되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지만 모더니티의 성숙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고, 모더니티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세계화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동일하다. 벨리스(1994)는 영미 문화/라틴아메리카 문화를 고딕 문화/바로크 문화로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혁명과 반종교개혁을 각각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규정한다. 라틴아메리카 경제와 문화적 정체성의 관계를 요약한 8장에서 벨리스의 궁극적인 주장이 확연히 드

러난다. 질서, 전통, 단일성, 계서제 등을 특징으로 하는 바로크 문화는 유동성, 변화, 다양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세계화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Véliz 1994, 178-208). 모더니티가 1990년대 칠레 사회의 화두가 되고 발전 방향이 되면서 기업가를 모범적인 칠레 국민으로 꼽는 담론도 형성된다(Larraín 2001, 171-72). 세계화 시대 그 누구보다도 해외 동향에 밝고, 신자유주의라는 국가적 목표 추진의 중심에 서 있고, 많은 수익을 창출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애국자라는 인식이 기업가를 주목하게 만든 것이다.

이사벨 아옌데가 칠레의 신자유주의 담론을 옹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비판적인 모습을 보인다.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칠레에 정착하면서 조국에 갈 때마다 흑백 산티아고와 총천연색 산티아고가 확연히 구분되는 것에 비판적이고, 신자유주의 도입 이후 소비풍조가 만연하고 부가 인생의 척도가 되는 상황을 고발하고, 사회적 분배가 악화되었다는 점에 가슴아파한다(Allende 2003, 30; 189; 191). 그러나 이사벨 아옌데의 '선량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운명의 딸』과 『세피아 빛 초상』이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복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은 빠울리나라는 기업가형 인물의 존재 때문이다. 두 작품에서 모두 비중 있는 인물로 등장하는 빠울리나는 사업 수완이 탁월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남편이 골드러시 소식을 듣고 캘리포니아로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그녀는 금 채굴보다 해운업이 더 많은 이윤을 남길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분야에 진출한다. 『운명의 딸』의 다음 대목은 기업가형 인간으로서의 빠울리나가 첨단기술(중기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줄 아는 미덕을 지닌 인물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빠울리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 너그러운 여름이 허락해 준 채소와 과일 때문에 난리였다. 너무 많이 생산되어 팔 데가 없었다. 채소는 뜰에서 무성해지고 과일나무는 열매 무게를 못 이겨 부러졌다.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을 돈 주고 사먹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수확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 밭에서 과일과 야채가 썩어나고 있는 아버지의 농장이 생각났다. 그것을 캘리포니아에 가지고 갈 수 있으면 금보다 더 값나갈

거라고 추론했다. 신선한 과일과 야채, 칠레 포도주, 의약품, 달걀, 고급 의류, 악기, 심지어 연극이나 오페레타, 사르수엘라도 통할 것 같았다. 샌프란시스코는 매일 수백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지금은 모험가와 건달들뿐이지만 틀림없이 미국 반대편에서 정착민들이 올 것이다. 정직한 농민, 변호사, 의사, 선생 등등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기꺼이 정착할 것이다. 여자가 있는 곳에는 문명이 싹트기 마련이다. 샌프란시스코에 문명이 시작되자마자 내 증기선이 모든 필요물품과 함께 그곳에 같이 할 것이라는 다짐을 했다(Hija, 156-57).

빠울리나는 첨단기술이나 아이디어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 자본과 노동의 국제적인 이동을 적절히 실행하고 활용할 줄 아는 인물이기도 하다. 증기선의 매입대금 중 상당 부분은 영국 은행에 있던 빠울리나의 예금으로 충당되었다. 『세피아 빛 초상』에는 빠울리나가 남편을 부추겨 미국의 대륙횡단열차 부설에 투자하고 중국인 쿨리를 고용하는 장면도 나온다(Retrato, 18). 자본과 노동의 국제적 이동, 첨단기술과 아이디어 등등의 이런 요소들 때문에 빠울리나는 19세기 인물이라기보다 차라리 신자유주의 시대의 기업가형 인물에 가깝다.

단지 빠울리나라는 기업가적 인간형의 존재 때문에 이사벨 아옌데와 신자유주의의 담합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아니다. 『세피아 빛 초상』에서는 빠울리나가 아예 1990년대 칠레의 번영을 낳은 선구적 인물로 격상되기까지 한다. 이 작품 속에서 그녀는 몰래 보르도 포도품종을 칠레에 가지고 오면서 프랑스 포도주와의 경쟁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힌다(Retrato, 224). 그리고 조카인 세베로에게 변호사 일보다 포도주 제조에 매진하라고 독려하여 마침내 프랑스 포도주와 비슷한 포도주를 만들어 낸다. 1차 산품을 제외하고 세계화 시대 칠레의 유일하다시피 한 국제적 산업인 포도주 산업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로 빠울리나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세베로도 『영혼의 집』에서는 별로 비중이 큰 인물이 아니었으나 『세피아 빛 초상』에서는 빠울리나의 기업가적 정신의 후계자로 각색되어 있다. 이런 설정으로 해서 이사벨 아옌데는 『영혼의 집』의 중심 메시지를 스스로 뒤집어버렸다. 『영혼의 집』의 알바는 사라져야 할 과두계층인 트루에바의 손녀가 아니라 칠레의 세계화를 선도한 기업가의 후손이다. 또한

『영혼의 집』에서는 쿠데타의 원인이 가부장적 질서이자 쿠데타로 인해 가부장적 질서가 무너진다는 점에서 20세기 칠레 역사를 칠레 과두계층의 자살의 역사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후속 작품들이 빠울리나와 세베로를 칠레 변영의 선구자로 설정했을 때, 쿠데타는 기업가적 정신을 말살한 사건이 된다. 문제는 쿠데타가 기업가 가문을 꺾어버린 사건이라는 관점이 칠레 현대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쿠데타 이후 군부정권이야말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도입함으로써 기업가적 인간형이 예찬 받을 터전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사벨 아옌데가 신자유주의적 기업가를 칠레 변영의 상징으로 격상시킬 때, 신자유주의에 대한 그녀의 비판적인 언술들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다시 『영혼의 집』에 대한 비판적인 비평들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이사벨 아옌데 자신은 『영혼의 집』이 여성의 관점에서 칠레 역사를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작품에 살바도르 아옌데, 네루다, 빅토르 하라를 연상시키는 인물들이 등장하거나 혹은 카라카스 망명 시절 이사벨 아옌데가 네루다의 시를 다시 읽고 칠레 민중가수들의 노래를 되풀이해 들었다는 회고에서 알 수 있듯이 『영혼의 집』은 민중적인 관점 역시 포괄하고자 한 작품이다. 『영혼의 집』에 대해 비판적인 비평들은 하위주체가 이 작품 속에서 그들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나 혹은 억압받은 민중이 가해자의 반성 없이도 용서와 화해를 제안하는 작품 결말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했다. 가브리엘라 모라의 비판이 대표적인 경우이다(Feal and Miller 재인용 2002, 134). 여성 작가로서의 이사벨 아옌데는 뛰어날지 몰라도 역사적·사회적 변동에 대한 그녀의 시각은 편협하다는 지적이다. 이 점이 바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사벨 아옌데의 비판적인 태도 역시 거대한 사회 변동에 대한 깊은 성찰의 결과로 보기에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드는 이유이다.

VI. 결론

『영혼의 집』과 『운명의 딸』, 『세피아 빛 초상』 사이의 세월은 이사벨 아옌데와 그의 작품 세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영혼의 집』에서처럼 국민으로서의 의무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국가의 테두리를 넘어 세계시민으로서 좀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거나 조국의 문제를 좀더 자유로운 관점에서 해석해보려는 시도가 가장 돋보이는 변화이다. 한편으로는 좀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또 한편으로는 조국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찰하고 해석하는 이사벨 아옌데의 태도는 그 자신이 처한 위치, 즉 이주자의 위치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되었다. 『운명의 딸』의 주인공이 이주민이고 『세피아 빛 초상』의 주인공이 역 이주민이라는 점은 이주자로서의 이사벨 아옌데의 위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녀는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자유로움을 천명하고, 그 어느 곳의 문제에도 개입할 수 있을 권리를 선언하는 것으로 사이에 낀 위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사벨 아옌데가 사이에 낀 주체로 재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산의 경험을 통해 세계를 보는 시각이 한층 유연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과 국가의 관계, 여성과 국가의 관계를 성찰하는 것으로 국한된 『영혼의 집』과는 달리 인종과 젠더와 계층의 문제까지도 천착하게 되었다. 이사벨 아옌데는 인간들끼리의 진정한 연대를 통해 모든 장벽을 초월할 것을 제안한다. 세계시민으로서 세계시민의 미덕이 무엇인지를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운명의 딸』과 『세피아 빛 초상』은 칠레 문단사로 보나 작가 개인적으로 보나 의미 있는 작품이다. 쿠데타 이후 망명 작가들의 작품은 칠레 문단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군부정권 말기부터 망명 작가들 상당수가 귀국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선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망명의 글쓰기는 존재기반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시점에서 이사벨 아옌데가 이산의 글쓰기를 시도했다는 점이 칠레 문단사에 커다란 공헌이었다. 흐르는 세월과 함께 망명 생활에서 이산으로 변환된 칠레의 수많은 해외거주자를 대변하려는 시도가

기 때문이다. 이사벨 아옌데 개인적으로 볼 때도 이 두 작품은 예전보다 인식지평을 넓혀서 『영혼의 집』이 받았던 일부 부정적인 평가, 즉 하위주체에 대한 깊은 이해나 그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어느 정도 불식할 수 있었다. 여성 문제뿐만 아니라 인종과 계층 문제에 눈길을 돌린 덕분이었다. 또한 『운명의 딸』과 『세피아 빛 초상』은 마술적 사실주의 작가나 페미니즘 작가로 주로 분류되던 이사벨 아옌데가 탈식민주의적 작가로 재평가되는 기틀도 마련했다. 이주해간 국가에서의 동화에 고민하기보다 사이에 낀 주체에 대해 성찰하면서 제1세계로 이주한 제3세계인의 관점을 표출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작품이 긍정적인 측면만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빠울리나라는 기업가적 인간형의 등장은 1990년대 칠레의 신자유주의 옹호 담론과 유사한 점이 많다. 모더니티 성숙의 증거를 세계화 혹은 서구화에서 찾는 호세 호아킨 브루네르나 끌라우디오 벨리스의 담론은 1990년대 초반 ‘경이적인’ 경제적 성장으로 들떠 있던 칠레 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와 함께 기업가가 애국자이고 본받아야 할 성공 모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운명의 딸』과 『세피아 빛 초상』이 빠울리나라를 성공한 기업가로서 뿐만 아니라 칠레 변영의 기틀을 마련한 선구자로 격상시킬 때 이사벨 아옌데의 작품은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빠울리나라를 둘러싼 부정적인 측면이 앞서 언급한 두 작품의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킬 수는 없지만 이사벨 아옌데에게 사회변동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부족하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Abstract

Este artículo analiza la trilogía de Isabel Allende: *La casa de los espíritus*(1982), *Hija de la fortuna*(1999) y *Retrato en sepia*(2000). Mientras que *La casa de los espíritus* es una típica escritura del exilio,

las dos obras posteriores muestran una característica de la escritura de la diáspora. Estas dos obras quieren presentar a personajes con virtudes del ciudadano universal. Es decir, Isabel Allende querían presentar a un tipo del ser humano digno de la era de la globalización. Pero, a pesar de algunos logros positivos, *Hija de la fortuna y Retrato en Sepia* causa sospechas de que estén colaborando inconscientemente con el neoliberalismo, porque su exaltación de los empresarios es muy similar a los discursos de Chile de los años 90 que defendían el neoliberalismo.

Key Words: Chile, Isabel Allende, Diáspora, Ciudadano universal, Neoliberalismo /
칠레, 이사벨 아옌데, 이산, 세계시민, 신자유주의

논문투고일자: 2004. 10. 26

심사완료일자: 2004. 11. 13

게재확정일자: 2004. 11. 20

참고문헌

- 우석균(2004), 「안토니오 스카르메타, 대중문화와 일상의 삶에서 일구어낸 문학」, in 손관수 외, 『환멸의 세계와 매혹의 언어 -‘붐’ 이후의 라틴아메리카 현대소설』, 한국문화사, pp. 133-148.
- 호미 바바(2003), 『문화의 위치』, (나병철 역), 소명출판.
- Allende, Isabel(1987), *La casa de los espíritus*, Bogotá: Editorial Oveja Negra.
- _____ (1999), *Hija de la fortuna*, Barcelona: Plaza & Janés.
- _____ (2000), *Retrato en sepia*, Barcelona: Plaza & Janés.
- _____ (2003), *Mi país inventado: un paseo nostálgico por Chile*,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 Brunner, José Joaquín(1992), *América Latina: cultura y modernidad*, México, D.F.: Grijalbo.
- _____ (1995), “Notes on Modernisty and Postmodernity in Latin American Culture”, in John Beverley et al.(eds.), *The Postmodernism Debate in Latin America*, Duke University Press, pp. 34-59.
- Coddou, Marcelo(ed.)(1986), *Los libros tienen sus propios espíritus*, México, D.F.: Universidad Veracruzana.
- Donoso, José(1986), *La desesperanza*, Barcelona: Seix Barral.
- Feal, Rosemary G. and Yvette E. Miller(eds.)(2002), *Isabel Allende Today*, Pittsburgh: Latin American Literary Review Press.
- Israel, Nico(2000), *Outlandish: Writing between Exile and Diaspor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Kaminsky, Amy K.(1999), *After Exile: Writing the Latin American Diaspora*, Minneapolis/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Larraín, Jorge(2001), *Identidad chilena*, Santiago: LOM.
- Moulian, Tomás(1997), *Chile actual: anatomía de un mito*, Santiago: ARICS Universidad/LOM.

- Piña, Juan Andrés(1991), *Conversaciones con la narrativa chilena*, Santiago: Editorial Los Andes.
- Skármeta, Antonio(1985), *No pasó nada y otros relatos*, Santiago: Pehuén.
- Subercaseaux, Bernardo(1993), “Nuestro déficit de espesor cultural”, in Manuel Antonio Garretón, Saúl Sosnowski y Bernardo Subercaseaux(eds.), *Cultura, autoritarismo y redemocratización en Chile*, Santiag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pp. 13-18.
- Véliz, Claudio(1994), *The New World of the Gothic Fox: Culture and Economy in English and Spanish America*, Berkeley/Los Angeles/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Villalobos, Sergio(1987), *Origen y ascenso de la burguesía chilena*, Santiago: Editorial Universitaria.